

AI 시대의 산업, 조직, 삶, 교육, 관계를 인지과학자의 눈으로 읽습니다.

기술이 바뀔 때 먼저 흔들리는 것은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과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그 변화를 다섯 개 분야로 나누고, 분야마다 세 개씩 모두 열다섯 개의 대표 강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기관의 요청에 맞춰 시간과 구성을 조정해 운영합니다.

분야	대표 강연
A. AI 전환과 미래 산업	A1 AX 담대한 전환 & AI 네이티브 컴퍼니 A2 AI가 다시 그리는 일, 산업, 경제의 지도 A3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의 현재와 미래
B. 리더십과 일하는 방식	B1 AI와 일하는 조직,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할까? B2 AI 시대, 일잘러의 의미와 전략 B3 같은 공간, 다른 뇌
C. 두 번째 지능: 삶과 성장	C1 AI 시대를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비법 C2 두 번째 지능으로 여는 두 번째 경력 C3 구경하던 인류에서 만드는 인류로
D. 미래 교육	D1 인지 시스템이 잠식되는 시대,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D2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시대: 우리 아이, 그리고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D3 청소년 미디어 문화 이해와 자녀 소통
E. 인공관계: AI 시대의 관계와 마음	E1 인공관계의 시대, 우리의 관계는 어디로 가는가? E2 AI와 관계 맺는 아이들, 교실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E3 감각의 품질에서 관계의 품질로

A. AI 전환과 미래 산업

AI가 산업과 기업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흐름을 읽고, 전략과 조직과 기술을 다시 설계하는 길을 다룹니다.

기술 소개보다 사람의 인지와 조직의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무게를 둡니다.

A1 AX 담대한 전환 & AI 네이티브 컴퍼니

대상 CEO, 경영진, 임원, AX 추진 조직, 중소기업 대표

- 자본 레버리지에서 AI 레버리지로: 비즈니스와 산업의 구조적 변화
- AI 네이티브 기업은 어떤 모습인가: 제거 검사, 비례 검사, 승인 검사
- AX 는 어떻게 하면 반드시 실패하는가: AI 를 효율 도구로만 보는 전환의 함정
- 전환의 4 단계: 전략(자동화에서 증강으로), 조직(R&R 재설계), 기술(에이전트와 Human-in-the-Loop), 리스크
- 담대한 전환의 조건: 경영진과 구성원이 함께 쓰는 그라운드 룰

A2 AI가 다시 그리는 일, 산업, 경제의 지도

대상 기업 임직원 전반, 경제 단체, 포럼과 컨퍼런스 기조강연

- 국내 한 철강기업의 AI 사용 기록 78 만 건에서 보이는 직장의 변화
- AI 가 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과 누구나 할 수 있게 쉬워진 일
- AI 시대 조직의 인지 변화: 상실된 주도성, 외주화된 판단, 사라진 책임, 침식되는 자기 신뢰
- 산업과 경제 구조의 재편, 브레이크 없는 변화의 연표
- 2050 년과 2100 년, 사람과 조직이 준비할 것

A3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의 현재와 미래

대상 경영진, 제조와 물류 기업, HRD 담당, 공공기관, 일반 시민

- 휴머노이드, 왜 지금인가: 로봇에게 찾아온 챗 GPT 의 순간
- 현재 어디까지 왔는가: 주요 기업과 기술, 두뇌와 몸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
- 공장과 물류센터에서 상업 공간으로, 다시 가정으로: 세 단계 확산 경로
- 노동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인재상과 HRD
- 사람은 휴머노이드를 사랑할 수 있을까: 관계, 권리, 위험

B. 리더십과 일하는 방식

AI가 일의 상당 부분을 맡는 조직에서 리더와 구성원의 역할을 다시 정의합니다. 지시와 관리의 자리를 관계와 신뢰, 메타인지, 도전과 주도성으로 채우는 방법을 다룹니다.

B1 AI와 일하는 조직,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할까?

대상 임원, 부서장, 팀장, 파트장, 현장 리더

- AI가 일상이 된 조직: 책임, 위로, 전수처럼 사람 사이에서 오가던 것들의 이동
- 전략 1.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자: 마찰이 안전하게 일어날 채널 만들기
- 전략 2. 메타인지를 확장하자: AI를 기술이 아닌 역량, 철학, 관계의 변화로 이해하기
- 전략 3. 민첩하게 실험하며 도전하자: 리더가 먼저 도전하고 실패의 압박을 덜어주기
- 전략 4. 경직된 벽을 허물자: 수십 년 굳은 문화와 구조를 푸는 리더의 몫
- 전략 5. 구성원의 주도성을 깨우자: 브릴랜드 부부의 본능 표류 실험이 보여주는 순응과 주도

B2 AI 시대, 일잘러의 의미와 전략

대상 조직 구성원 전반, 실무자, 주니어와 신입사원

- AI 시대 직무의 변화와 직장인이 품은 불안의 원인
- 일잘러의 조건: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에서 질문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 AI 메타인지를 넓히는 두 단계: 질문으로 인식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꾸준한 실행으로 내재화하기
- STAR로 세우는 나와 팀의 실행 계획: 시작하고(Start), 도전하고(Try), 증폭하고(Amplify), 되찾기(Recover)
- AX에 맞게 내 R&R을 다시 쓰는 방법: 빼앗기는 역할에서 다시 설계한 역할로

B3 같은 공간, 다른 뇌: 소통과 신뢰를 잇는 인지과학적 사고법

대상 부서 간 협업이 많은 조직, 엔지니어 조직, 리더십 과정

- 좋은 소통이란 무엇인가: 이해, 공감, 신뢰가 쌓이는 순서
- 같은 자리에서 다른 것을 보는 이유: 사람마다 다르게 작동하는 인지
- 부서와 직군의 벽을 넘는 일곱 가지 인지과학적 사고법
- AI가 끼어든 소통 채널에서 신뢰를 지키는 법

C. 두 번째 지능: 삶과 성장

AI를 나의 두 번째 지능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의 지능을 감성, 자기성장, 존재와 의미의 방향으로 옮겨 가는 길을 다룹니다. 불안보다 기회로 이 시대를 보는 법과 오늘부터 해볼 실천을 함께 드립니다.

C1 AI 시대를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비법

대상 일반 시민, 직장인, 공무원, 대학생, 북콘서트

- AI 시대 개인과 사회의 중장기 변화: 수명, 일자리, 양극화
-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징후: 사고하는 힘, 관계, 교감력, 정서
- 첫 번째 지능과 두 번째 지능: AI를 도구가 아닌 또 하나의 지능으로 받아들이기
- 네 가지 제안: 메타인지 넓히기(35 가지 질문과 네 가지 인식 지대), 실패를 가정한 도전, 소중한 관계 지키기, 내 안의 주도성 살려내기
- 현명하게 생각하고 일하기 위한 실용적인 AI 공부와 실행 기법

C2 두 번째 지능으로 여는 두 번째 경력: AI 시대, 내 정체성과 꿈을 찾는 길

대상 50+ 세대, 은퇴 준비자와 은퇴자, 시니어, 중장년 직장인

- 대기업 리더 600 명에게 물었습니다: 이 조직을 떠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 인생 삼분론의 끝: 황혼기가 아닌 여명기, AI라는 새로운 지능 레버리지
- 두 가지 걸림돌: 도구만 잘 쓰는 리터러시,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것
- AI가 나를 인터뷰하는 자서전과 영화 만들기, 쉰 이후에 길을 찾은 사람들
- 오늘부터 해볼 세 가지: 삶 돌아보기, 내 꿈 정하기, AI로 작게 시작하기

C3 구경하던 인류에서 만드는 인류로

대상 시민, 문화예술 기관, 창작자, 지역 문화 행사

- 노래하고, 춤추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경꾼이 되었나
- 기술은 백 년 동안 객석을 넓혔고, AI는 무대로 가는 문턱을 낮춘다
- 창작의 인지 과정: 문제 인식, 경험의 수집, 탐색과 연상, 숙성, 구체화, 평가와 수정
- 구경하는 자리의 가치, 구경과 창작을 오가는 시민이 많은 도시

D. 미래 교육

인지 시스템이 AI에 기대는 시대에 교육이 지켜야 할 것과 바뀌어야 할 것을 다룹니다. 정답을 맞히는 아이보다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질문하는 아이, 그 곁을 지키는 교육자의 역할에 초점을 둡니다.

D1 인지 시스템이 잠식되는 시대,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교장과 교감, 장학사, 초중등 교사, 교원 직무연수

- 아이가 챗봇에게 숙제를 맡기고, 선생님은 머뭇거린다
- AI에 기대는 인지 시스템: 배움에서 무엇이 약해지는가
- 교육의 방향, 다섯 가지 힘: 탐험력, 질문력, 교감력, 판단력, 적응력
- 정답을 찾지 않는 대화, 왜라고 물어도 혼나지 않는 교실
- 교육 리더 편: 경직된 벽을 허물고, 도전을 지원하고, 교사를 리더로 세우는 리더십
- 교사 편: 역할을 빼앗기는 교사에서 스스로 다시 설계하는 교사로, 나의 소명과 가치

D2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시대: 우리 아이, 그리고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대상 학부모, 학부모 연수,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행사

- AI 시대의 진로와 일자리 변화: 일자리의 시대에서 일거리의 시대로
- AI 시대 아이에게 필요한 힘과 학습 전략
- 부모의 역할 변화: 막아야 할까, 열어줘야 할까
- 질문을 키우는 대화와 실패해도 괜찮은 경험

D3 청소년 미디어 문화 이해와 자녀 소통

대상 학부모,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 상담과 복지 기관

- 아이들은 왜 거기에 머무는가: 게임의 미션, 피드백, 리워드
- 숏폼과 추천 알고리즘: 언제 올지 모르는 보상과 멈추지 못하는 뇌
- AI 친구: 아이들이 AI에게 마음을 여는 이유
- 지친 부모의 네 가지 반응과 부모의 게임 인류 레벨 자가 진단
- 함께 정하고 함께 지키는 규칙, 얼굴을 마주 보는 대화 연습

E. 인공관계: AI 시대의 관계와 마음

서로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 어느 한쪽 자리에 사람 대신 기계가 앉는 관계, 인공관계를 다룹니다. 인공지능이 가짜 지능이 아니듯 인공관계도 가짜 관계가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를 판정하기보다 이 관계를 해부하는 시선으로, 사람과 조직이 지켜야 할 것을 찾습니다.

E1 인공관계의 시대, 우리의 관계는 어디로 가는가?

대상 기업 임직원과 HR, 임원, 대학생, 인문 포럼, 일반 시민

- 관계를 이루는 네 요소의 변화: 세계, 자아, 상대, 채널
- 사람들은 왜 AI와 대화하는가: 응답, 기억, 마찰, 상호 취약성
- 도형 세 개에도 이야기를 붙이는 뇌: 하이더와 지멜의 실험, 던바의 관계 동심원
- 인공관계는 무가치한 허상도, 인류의 새로운 미래도 아니다
- 조직 편: 사람과 AI가 섞인 관계망, AX의 성공 조건과 HR의 소명
- 시민 편: 내 생각은 누구의 것인가, 잘 배우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E2 AI와 관계 맺는 아이들, 교실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대상 초중등 교사, 교원 직무연수, 교육청

- 한 번도 반대하지 않는 친구: 아이들이 AI와 맺는 관계
- 다 같이 실험: 같은 문장을 챗봇에게 보내면 어떤 답이 오는가
- 마찰 없는 관계에서 자라지 못하는 것들
- 교실이 가르쳐야 할 관계의 힘과 교사에게 던지는 다섯 가지 질문

E3 감각의 품질에서 관계의 품질로: 인공관계의 시대, 사람과 제품과 브랜드는 어떻게 만나는가?

대상 제조, 자동차, 게임, 콘텐츠, 마케팅 기업의 연구원과 기획자

- AI는 도구에서 상대로: 제품과 서비스가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될 때
- 일터와 집으로 들어오는 기계의 몸: 휴머노이드와 함께 사는 장면
- 모빌리티: SDV와 AIDV, 기능을 넘어 교감으로
- 게임과 콘텐츠: 캐릭터와 플레이어,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 설계
- 브랜드와 마케팅: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가